전남매일

www.jndn.com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제8909호 (음력 6월 8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 현대아미스(주)

공동주택관리 경비·청소 용역 소방시설관리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이 최적지다

전국 지자체 유치 경쟁 본격화 AI집적단지 등 기술력 우위 한전 · 에너지공대 · 입지 장점 김영록 지사, 특위 참여 배수진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하면 서 전국 지자체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4차산업의 쌀' 로 불리며 글로벌 경제의 중심 추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 것으로, 광주·전남 역시 앞 선 기술력과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 너른 입지 등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분야 핵심 정책인 '기회발 전특구'를 활용,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키로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 중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파격 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지자체 자율성 강 화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을 제정, 지방주도 특화산업 및 투자자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어서 각 지자체 간 유 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대표적 분야가 광주・전남이 치켜든 반도체 특 화단지 조성으로, 강원도는 최근 정광열 삼성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당·정·학(더불어민주당-광주시-전라남도-대학총장단) 간담회

2022. 7. 5.(화) 10:20 / 전남대학교 본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 😤 광주광역시 起 전라남도 대학총장단



당·정·학간담회

5일 오전 광주 전남대학교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당·정·학(더불어민주당-광 주시-전라남도-대학총장단)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참석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자 부사장을 경제부지사로 영입한 뒤 반도체 공 장 부지로 원주부론산업단지 등을 확보한 상태

수도권에서도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 천시는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후공정 산업(패키징)'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경기도에서 는 의정부가 미군이 철수한 캠프 스탠리 부지를 활용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양주시 와 포천시도 이전한 군 부대 부지 등을 반도체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용인시에서는

국내 최초 반도체 산업단지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 내달 착공한다. 경북도 역시 구미 5공단에 '제2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유치를 전면에 걸 고 나섰다. 대전시도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설 립 및 규모 100만평 이상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는 등 전국에서 유치 경쟁이 치

이에 맞서 광주·전남은 시도 상생 카드를 꺼 내들었다. 지난 5월16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 영록 전남지사가 상생 1호 공약으로 반도체 특 화단지 조성을 천명한 이후 협력체계를 강화하

고있다.

시도는 광주·전남이 가진 명확한 강점을 바탕 으로 특화단지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광주시의 인공지능(AI) 분야 독보적 기술력 과 인프라, 전남의 부지와 자원 공급 등이 대표 적이다. 광주는 오는 2024년까지 첨단3지구에 조성 중인 AI집적단지를 통해 각종 인프라·기 업·인재·기술 등을 집약, 반도체 산업과의 긴밀 한 연계가 가능하다. 특히 AI데이터센터의 경우 국내 기업이 개발한 AI반도체를 검증하는 테스 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생산시설과 시장

을 잇는 주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사관학교 에서도 AI 반도체 관련 실무 인재를 양성, 수준 높은 인력을 제공하게 된다.

전남에서는 부지 선정과 자원 · 인력 수급이 원 활하다. 특화단지 조성의 선결과제인 부지는 장 성군이 적극 나서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 난 6·1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만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300만평 규모의 부지 조성 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여기에 혁신도시에 입지한 한전을 통해 전력 의 송·배전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통한 인력 수급도 장 점이다. 양 시도지사 역시 연일 특화단지 유치를 이슈화하며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달 2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진복 정무수석을 면담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강 시장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반도체 산 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 은 상생을 위해 3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았 다"며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선정을 요

김 지사는 아예 지난달 28일 출범한 '국민의 힘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반도체 산 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광주시 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 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 시도 실무진들이 네트워 크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제 설정 등 상생 협력 밑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면서 "8월 중순께 예정된 조직 개편에서 반도체산업 팀이 신설되면 계획 수립과 논의가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삼각동에 들어선다

도시계획안 공고·행정절차 착수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시 • 도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에 시험 장이 신설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 개발제

한구역(4만210㎡) 부지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 설을 갖춘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변경했다.

사업시행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사업 기간 은 2025년까지로 예정돼있다. 사업비는 국비 약 26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주민 ·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를 받은 뒤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안을 확정 · 고시할 예정이다.

남도여행의 즐거움이 커지는

이어 내년 초 실시 • 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 가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

이 있지만, 광주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 주 시민들은 나주 시험장에서 각종 시험과 검사

이에 광주 신설 요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 험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고 도로교 통공단이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 등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건립이 본격화되자 이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 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운전면허시험장이 광주에 신설되면 광주를 비롯해 전남 북부, 전북 남부 주민들까지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길용현 기자

NSIDE NEWS

성추행 · 음주운전에도 의장 당선

전남도립대 존립기반 '위태' ▶4면

담배꽁초 수거함 '쓰레기통' 전락 ▶7면 코로나 확진자 600명대 급증

광주·전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00명대로 늘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광주 280명, 전남 385명 등 총 665명이 확진됐다.

휴일인 지난 3일 292명, 2일 326명, 1일 407 명, 6월 30일 398명, 6월 29일 444명 등 평일 기 준 400명대를 유지하다가 확진자가 급증했다.

여수에서는 가족 간 감염으로 14명이 확진됐 고, 순천에서도 가족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 다. 광주·전남 모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군별로는 여수 84명, 순천 77명, 광양 50 명, 목포 39명, 나주 23명 등이다. /오선우 기자

260억 투입…2025년 운영 예정 시는 앞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를 다는 계획이다.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

를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원을 중심으로 시

❖ 전라남도

▶3면

나라도민 <mark>중 신청하세요</mark>

